



LPG충전소의 외국인 취업허용 검토

●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●

최근 우리회가 LPG충전소의 외국인 취업허용을 산자부와 노동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, 산자부 가스산업과가 검토한 내용을 게재한다.

1. 검토배경

- 민생연료인 LPG를 공급하는 충전소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충전업계의 경영 부담 및 서민 가스요금의 상승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취업허용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관련업계에서 건의

2. 충전소 및 충전인력 현황

가. 충전소의 종류 및 기능

- 용기충전소 :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취사·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용기에 LPG를 충전
- * 충전소에서 충전된 용기는 판매소를 통해 배달됨
- 자동차충전소 : LPG차량에 충전기를 통해 연료를 공급(주유소와 유사한 기능)
- * LPG차량은 영업용 택시, 화물차, 승합차, 장애인·국가상이유공자용 승용차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(약 150만대)

나. 충전소 현황

- 2002.6말 현재 전국의 충전소는 924개에 이르고 있으며,
- 용기충전소 41개, 자동차충전소 760개, 겸업(용기+자동차)충전소 164개임

다. 충전소 인력 현황

- 충전소에는 책임자,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충전원만 7,000여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
- 용기충전소 : 4~5명의 충전원 고용
- 자동차충전소 : 1일 3교대로 6명내외의 충전원 고용
- 충전원의 작업내용
- 용기충전소 : 용기운반차량 유도, 불량 용기 확인, 용기에 충전, 차량으로 용기 운반 등

충전소 수, 2002. 6말 현재

지역	용기 (A)	겸업 (B)	자동차 (C)	합계	
				용기(A+B)	자동차(B+C)
서울	4	2	60	6	62
인천	3	5	29	8	34
경기	6	25	126	31	151
부산	2	13	22	15	35
울산		5	18	5	23
경남	4	24	64	28	88
대구	2	7	23	9	30
경북	4	13	81	17	94
대전	1	4	21	5	25
충남	4	7	70	11	77
충북	1	14	38	15	52
광주	2	6	19	8	25
전남	4	13	65	17	78
전북	2	8	63	10	71
강원		18	45	18	63
제주	2		16	2	16
계	41	164	760	205	924

충전원 수, 2002. 6말 현재

지역	용기 (A)	겸업 (B)	자동차 (C)	충전원수			계
				용기	겸업	자동차	
서울	4	2	60	20	30	600	650
인천	3	5	29	15	75	290	380
경기	6	25	126	24	250	756	1,030
부산	2	13	22	10	195	220	425
울산		5	18		75	180	255
경남	4	24	64	16	240	384	640
대구	2	7	23	10	105	230	345
경북	4	13	81	16	130	486	632
대전	1	4	21	5	60	210	275
충남	4	7	70	16	70	420	506
충북	1	14	38	4	140	228	372
광주	2	6	19	10	90	190	290
전남	4	13	65	16	130	390	536
전북	2	8	63	8	80	378	466
강원		18	45		180	270	450
제주	2		16	8		96	104
계	41	164	760	178	1,850	5,328	7,356

- 자동차충전소 : 차량유도, 자동차에 충전호스 연결, 요금정산 등
- * 충전원은 신규종사시 가스안전공사의 특별교육(6시간) 이수

3. 충전소의 외국인 취업허용 필요성

가. 원활한 인력 확보로 사업자의 경영애로 해소

- 현재 충전소는 3D업종으로 인식되어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고, 제조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
- 용기충전소의 현행 근무여건(일 8시간, 월 100만원 수준, 숙식제공)에 저소득층·중고령자도 기피
- * LPG용기충전업은 도·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으나 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형태는 제조업과 별 차이가 없음
- 겨울철에도 개방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으로 인해 이직이 빈번
- 충전소마다 1~3명씩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
- 충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작업강도로 인해 중장년층 퇴직인력 대체 곤란
- 특히 용기충전소에서 용기를 다루는 작업은 용기중량을 감안할 때 경험없는 중장년층이 수행하기는 어려움
- * 유통되는 용기중량(용기+가스) : 40kg 및 100kg

나. 민생연료 사용자의 부담 경감

-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가스는 민생연료로서 고임금에 따른 다른 가스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기될 가능성 상존
- * LPG는 상대적 서민계층인 농·어촌 및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도시외곽 주민이 사용

- 난방·취사용 LPG의 가격은 현재에도 도시가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가격인상요인 억제 필요
- *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높은 도입가격, 1단계 많은 유통체계 등으로 40~60% 높은 수준

다. 숙련된 노동인력 확보 및 가스안전 제고

- 용기를 다루는 작업은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나 내국인의 경우 높은 이직율로 안전관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
- 따라서,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여 취업허용기간(1~2년)동안 충전소에 근무할 경우 숙련된 상태에서 LPG 취급 가능
- 작업장내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있고, 충전원은 특정 자격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법정 교육(6시간)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면 업무 수행에 별 문제가 없음

〈참고〉

충전소의 외국인 취업 수요

- 전체 충전소 수요(용기 및 자동차) : 약 1,000명
 - 충전소별 평균 1~2명씩 충원시 충전업계 전체적으로는 1,000~1,300명의 충전원 필요
 - * 전체 충전소 : 924개
- 용기충전소 수요 : 약 400명
 - 특히, 용기충전소의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여 충전소별 평균 2명씩 충원시 4백여명의 충전원 필요
 - * (용기충전소 41개+겸업 164개)×2명 = 410명